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에 45억 소요”

외벽 페인트·엘리베이터 철거 등에 1년 6개월 걸려

문화전당측 “예산 확보 어렵고 민평원 개관 지연 부담”

5·18 기념재단 등이 주장하는 옛 전남도청 건물을 원형복원하면 45억원 가량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11일 정부 소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문화전당 민주평화원에 포함된 옛 전남도청을 원형복원할 경우 이같은 비용이 들 것으로 파악됐다. 정밀 설계결과를 토대로 한 금액이 아니고 업계 관련자들의 분석을 취합한 것이다.

옛 전남도청 본관은 회의실·별관, 상무관, 경찰청 본관·민원실 등과 함께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을 구성하는 6개 건물 중 하나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5월 단계의 요구대로 옛 전남도청 본관을 원형복원하면 공사 시작 시점부터 완료까지 1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현재 도청본

관 안에 설치된 광주항쟁 관련 예술작품과 건물 외벽에 칠해진 페인트 등을 걷어내고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다. 현재 1층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모두 철거하는 공정도 감안됐다.

문화전당측이 복원 비용을 추산한 것은 5·18 기념재단 등이 “옛 전남도청 1층 상 황실과 방송실, 건물 안팎에 있던 총탄 흔적이 훼손됐다”며 원형복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군은 광주항쟁 당시 총을 쏘며 이 공간에서 저항하던 시민군을 진압했다.

문화전당측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문화전당이 개관했지만, 민주평화교류원 원형복원 논란이 제기되면서 현재까지 전면 개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설사 원형복원을 결정하더라도 민주평화교류원 리모델링과 콘텐츠(전시 작품) 구축에 280여억원을 사용한 상태기 때문에 복원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문화전당의 한 관계자는 “전당이 이미 개관한 상태에서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원형복원 비용을 요구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그렇지 않아도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 복원을 위해 1년6개월 동안 문화전당

을 개관하지 못하는 것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계(유족회·구속자회·부상자회)는 올초부터 옛 도청 건물 원형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민주평화교류원 콘텐츠 구축작업은 중단돼 있으며, 문화전당측은 민주평화교류원에 광주항쟁 전 기간의 역사를 예술로 승화한 ‘열흘 간의 나비’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염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시민 영화·스포츠 관람 선호

호남통계청 ‘2016 사회지표’

“공연·전시 등 관람” 71.4%

전남도민은 52.5% 그쳐

광주시민은 타 지역에 비해 영화나 스포츠 관람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 사회지표로 본 광주·전남 지역 변화상’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공연, 전시를 단 한 번이라도 관람한 광주시민은 71.4%로 전국평균 66.8%보다 높게 나타났다. 관람 내용은 영화 관람이 87.5%로 가장 높았고 스포츠 관람 34.9%, 박물관 24.4%, 연주회 19.3%, 미술관 17.9%로 조사됐다.

2013년 대비 영화 관람은 4.0% 포인트, 스포츠 관람은 2.5% 포인트 등이 증가했지만, 박물관, 미술관 관람은 3.0% 포인트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남은 전시관람 등이 52.5%로 전국 평균치보다 낮았다. 관람 내용은 영화관람(82.7%), 박물관(33.2%), 스포츠관람(22.0%)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대비 영화관람은 2.9%포인트 박물관은 4.6%포인트 등이 증가한 반면 연극·뮤지컬은 2.4%포인트 미술관 관람은 5.1%포인트씩 감소했다.

광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111만 2000명(73.3%)에서 2040년에는 83만명(58.1%)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유소년 인구는 2015년 23만6000명(15.6%)에서 2040년에는 18만6000명(13.0%)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16만9000명(11.1%)에서 41만 4000명(28.9%)으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해 대조를 보였다.

한편 광주의 총인구는 2015년 151만 7000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다 201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인구성장률 역시 2015년 0.04%에서 2040년에는 -0.62%일 것으로 예측했다.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가 2015년 22.0%에서 2040년에는 41.1%로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는 2015년 175만 7천명으로 2026년까지 감소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인구 증가율은 2015년 -0.09%에서 2040년에는 -0.18%일 것으로 전망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복달임 먼저 하세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지사(회장 최상준) 직원봉사회는 초복을 앞둔 11일 인근 어르신들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를 가졌다.

/최혜미기자 choi@

광주 공동체 “5·18 특별법 개정안 통과돼야”

지자체·의회·시민단체 촉구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지역 5개 구청,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11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과 5·18 비방·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담은 5·18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주공동체’라는 이

름으로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석 단체는 5월 관련단체를 비롯해 광주시, 시의회, 시교육청,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모두 18곳에 이른다.

이들은 공동 메시지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5·18 왜곡·편향 행위의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기념

곡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5·18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 분수령이 된 정신적, 문화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체는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5·18 역사왜곡대책위는 오는 22일 국회

의회관에서 야 3당과 함께 5·18 역사왜곡방지법과 관련자 처벌 규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국민의당은 지난달 1일 당 소속 의원 38명 전원이 참여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과 제창, 5·18 비방·왜곡 및 사실 날조 행위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계호 의원이 국민의당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당론 발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스트레스, 도시보다 시골이 더 심하다

비만도·질병 유병률도 높아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대도시보다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도나 질병의 유병률도 시골이 더 높아서 지역 간 건강 불균형이 심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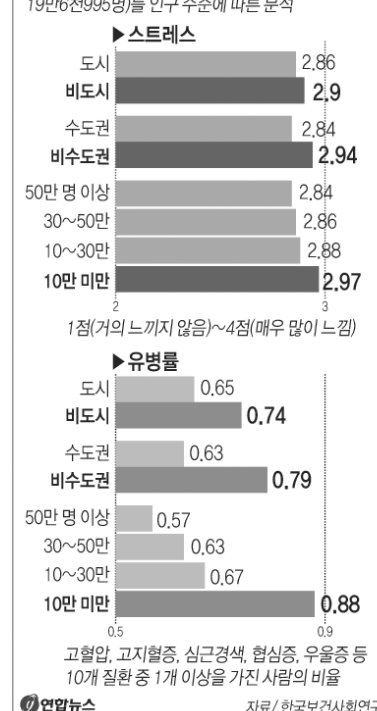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지역적 건강 불평등과 개인 및 지역 수준의 건강 결정요인(플로리다주립대 이진희)의 분석 결과다. 이 보고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건강조사(2010년·대상자 19만6995명)를 인구 수준에 따른 분석해 비만도, 스트레스 수준, 질병 유병률을 살펴봤다.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MI), 스트레스 수준은 1점(거의 느끼지 않음)~4점(매우 많이 느낌)까지의 4점 척도, 유병률은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협심증, 우울증 등 10개 질환 중 1개 이상을 가진 사람의 비율로 계산했다. 그 결과 스트레스 평균점은 도시가 2.86점으로 2.90점인 비도시 지역보다 낮았다.

이런 경향은 비만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도시보다 비도시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오히려 더 풍부한 편이었다.

체질량지수의 평균값은 도시가 22.88이었지만 비도시는 이보다 높은 23.08점이었다. 비만도는 40대 이하에서는 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건강조사(2010년·대상자 19만6995명)를 인구 수준에 따른 분석



도시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더 큰 편이었던 것, 노년층으로 가면서 도시 지역이 비도시보다 더 컸다. 즉, 젊은 층은 도시 쪽이, 장·노년층은 비도시 쪽이 비만한 정도가 큰 것이다.

지역 간 격차는 유병률에서 더 뚜렷해 도시의 유병률이 0.65로 비도시의 유병률인 0.74과 차이가 컸다. /연합뉴스

사람찾음

성명: 박영욱(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동 제일파크 아파트 집을 나설때 열린 보라색 상의 집바와 열린 초록색바지를 입고 발색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왜소한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치매증상이 있음.

위 인상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500만원

찾는이: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진짜 문외한이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9기 광주 여성CEO MBA 교육생 모집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필요한 경영 학습을 통해 지역 여성CEO들의 경영능력 향상을 도모하며, 기업 경영 및 판로개척에 필요한 **협상스킬 증대**를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리더십, 마케팅, 비즈니스 매너, 이미지컨설팅 등의 실전 중심의 현장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9기 광주 여성CEO MBA 교육에 많은 여성기업 대표 및 임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 교육주제: 성공을 위한 여성CEO들의 협상 전략
- ▶ 기 간: 2016년 07월 13일(수) ~ 09월 08일(목) (07.20~08.04: 휴강)
- ▶ 교육시간: 18:00 ~ 21:00(12회/매주 수,목요일)
- ▶ 교육대상: 여성CEO 및 여성 임원
- ▶ 장 소: 광주상공회의소(지하1층, 제3강의실)
- ▶ 교 육 비: 120,000원 * 입금계좌: 광주은행 053-107-39004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 수강신청기간: 7월 13일까지
- ▶ 신청방법: 온라인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교육/컨설팅 → 지원사업안내 → 여성CEO MBA교육 → 온라인신청(광주)
- ▶ 문 의: 062-527-1612 (이은정 팀장)
- ▶ 교육 세부 일정

| 차수 | 날짜 | 분 야 | 주 제 | 강사명 | 소속 및 주요이력 |
|-----|------|------------|--------------------------|-----|--|
| 1차 | 7/13 | 커뮤니케이션 | 잡 스트레스 관리 '나의 행복이 우선이다' | 정은경 | KBS광주총국 리포터 |
| 2차 | 7/14 | 리더십심리상담 | 사라로 알아보는 리더의 경영과 협상 | 임혜리 | 중국 산동성 연타이 대학교 외래강사 |
| 3차 | 8/10 | 커뮤니케이션 | 배우에게 배우는 매력적인 스피치 레슨 | 배한성 | TBC 공채 2기 성우/방송인 |
| 4차 | 8/11 | 커뮤니케이션 | 유머와 감성을 겸비하라 | 김지희 | UBC 및 KBS 아나운서 |
| 5차 | 8/17 | 커뮤니케이션 | 말 잘하는 CEO들의 1% 되는 전략 | 김혜영 | SBS/CJB 광주 방송국 리포터 |
| 6차 | 8/18 | 리더십심리상담 | 행동유형분석(DSCI)으로 타인을 이해하라 | 최연수 | 중국SEGA 네트워크 마케팅 책임자 |
| 7차 | 8/24 | 홍소핑세일즈 | 홍소핑을 알면 '미' 모르면 '지' | 유정진 | GS홍소핑 및 현대홍소핑 쇼 호스트 |
| 8차 | 8/25 | 커뮤니케이션 | 자신감으로 설득하라 | 최 한 | 동대문구의회/광남구의회 아나운서 |
| 9차 | 8/31 | 커뮤니케이션마케팅 | 서로를 이어주는 '소통의 기술' | 박혜은 | 굿커뮤니케이션 대표 |
| 10차 | 9/1 | 퍼스널라이미지메이킹 | 이미지컨설팅과 함께하는 여성CEO의매력만들기 | 권하연 | 글로벌 이미지컨설팅대표 |
| 11차 | 9/7 | 국제매너 | 이문화에 대한 이해와 실전 비즈니스 매너 | 김민경 | UAE Emirates Airline 승무원/미리조나 Kyrene del las Maritz 교사 |
| 12차 | 9/8 | 커뮤니케이션 | [워크숍] 성공적인 대화 방법 | 송도순 | TBC 공채 3기 성우/방송인/스페셜스피치이카데미 원장 |